



광주지역 자원봉사자들이 겨울철을 맞아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집을 방문,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복지 사각지대’ 직접 찾아 지원한다

복지부, 내년 1월29일까지 ‘복지 소외계층 집중 발굴’ 지원 강화

기초수급자 탈락·홀로사는 노인 등 대상... 겨울철 긴급 생계지원

지난 1월 13일 순천시 주암면 한 조립 식 주택 방 안에서 A(여·89)씨가 숨진 지 나흘 만에 발견됐다. 경찰 출동 당시 씨는 저온 상태로 커진 전기장판 위에 누워 숨져 있었다. A씨는 월 9만5000원의 기초 노령 연금을 받았으며 국가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거나 고쳐주는 ‘사랑의 집’에 살았고 노인 돌봄 서비스는 받지 않았다.

이를 전인 1월 11일 B(여·69)씨는 광주 시 남구 모 아파트 욕실에서 숨졌다. 고혈압 증세를 보인 B씨는 3일 전에 남편의 제사를 치르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광주 동구에 사는 C(여·79)씨도 같은 달 2일 집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9일까지 ‘복지 소외계층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3개월 이상 사용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수도·가스가 끊긴 가구를 비롯, 최근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가 밀린 가구, 최근 3개월 사이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에서 탈락했거나 신규 신청자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수급권을 얻지 못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창고·공원·화장실·역·터미널·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어려운 환경의 홀로 사는 노인·한 부모 가족, 가족의 질병·고령 등으로 간병 부담이 큰 가구 등도 정부의 관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이들의 생활 현황을 파악한 뒤 긴급지원 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인 경우 최대한 공적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예를 들어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1회 50만원 범위에서 연체 요금을 지원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자체가 겨울철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동안 긴급 생계지원에 나설 수 있다.

또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다소 맞지 않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나 우선 돌봄 차상위 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나친 간병 부담 등으로 정상적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노인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 제도의 관리를 받도록 유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60대 홀로 사는 노인이 숨진 지 여러 해가 지나 발견되거나 마비 상태인 아들을 간호하다가 같이 자살하는 등 최근 소외된 이웃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사례를 발굴, 복지 취약계층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 내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연계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자체, 통·리장, 복지위원, 담당공무원 등에게는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동구, 찾아가는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호응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 건강상담·한방진료 등 서비스

광주시 동구(청장 노희용)에서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로당 전담주치의 제도’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처음으로 경로당 106곳 중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45곳을 대상으로 경로당 전담주치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동구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전담주치의팀은 경로당 45곳 중 15곳씩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은 뒤 건강상담·구강진료·치매검진·한방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

고 있다. 이들 팀은 연평균 네 차례 이상 지정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올해 이들로부터 의료혜택을 받은 어르신 수는 모두 2000명.

구는 내년에 ‘경로당 전담주치의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경로당 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담주치의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구는 내년도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뒤 경로당 전담주치의

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로당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다. 동구 학동 속살마을 경로당을 찾은 조삼례(80)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게도 빠지지 않고 꼭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 병원에 한 번 가려면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하는데, 이들 덕분에 수고를 덜게 됐다”고 말했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경로당 전담주치의 제도는 어르신 수가 많고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점이 특징인데, 만족도가 높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어르신 목욕시킬때 수치심 주지 마세요”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 제작보급

“노인들에게 동의없이 단체복을 일괄 착용시키거나 편의를 위해 짧은 헤어스타일을 강요하지 말 것.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노인의 부적응 행동을 꾸짖지 말 것.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때에는 노인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할 것”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고 서비스

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했다. 매뉴얼은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매뉴얼에는 시설 종사자들이 노인의 입소 전부터 퇴소 때까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단계별·사례별로 제시됐다. 매뉴얼에는 ▲ 입소 결정에 있

어서 노인의 선택권 보장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 보장 ▲ 의복과 헤어스타일, 개인의 생활스타일 존중 ▲ 퇴소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이 식사를 거부하거나 시설 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노인과 보호자의 의견이 상충할 때, 시설에서 커플이 된 노인들이 합방을 요구할 때 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대처법도 수록됐다. /이종행기자 golee@

# “요양병원 환자 과도한 신체 억제 안돼요”

복지부, ‘신체 억제대’ 사용 지침 발표

보건복지부는 24일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국 요양병원과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키로 했다. 요양병원의 환자의 과도한 신체 제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침은 요양병원에서 생명유지 장치 제거나 낙상·자해 등을

막고자 장치나 기구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특징이다.

지침에는 신체 억제대의 경우 1일 1회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용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목욕이 생기는 것을 막도록 자세를 바꿔주도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직원들이 편의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것”이라며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주) 오천경매 직통, 010-3605-5000 대표, 최선규 드림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 오직 경매만 하실 분
- ▶ 현, 5명 근무 4명 모집
- ▶ 책상/컴퓨터등 집기 제공
- ▶ 사업자 가능/여직원 보조
- ▶ 공동투자, 권리분석등 혜택
- ▶ 사용료, 1200만원(1년)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낙찰 사례 실전 교육
-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 주 1회/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 경매에 투자 하실 분

- ▶ 투자금 1억원 이상
- ▶ 지분/공동투자 방식
- ▶ 제1순위 근저당 방식
-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 ▶ 수익률, 년 15% 이상
- ▶ 투자기간, 1년정도

# “급매”

1.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3층 53평  
전체 울수리, 코너, 전망 좋음  
주거겸사무실(방2, 거실)  
매매가, 1억5500만원(시세 2억)

2.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상가, 1층 25평  
현, 보3천만원에 월125만원 임대 중  
대출 7500만원 가능)  
매매가, 1억7500만원(시세 2억5천만원)